

# 마가복음 16:2의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ίου의 함의와 번역 제안

장성민\*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문론적으로 마가복음 16:2(*καὶ λίαν πρωῒ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의 ‘오른쪽 말미’(right-periphery)를 형성하는 속격 독립 구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의 신학적 함의를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는 것이다. 아래의 번역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이 어구는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left-periphery)인 *λίαν πρωῒ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되어 통상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뜰 때” 정도로 번역된다. 본 절의 좌우 말미는 주문장을 중심으로 염연히 좌우에 나뉘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인 채 그저 주문장인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그들이 무덤에 갔다)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째’ 번역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몇 가지 난점 탓에 문장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ωῒ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이 어구를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문장 내의 위치, 마가의 독특한 문체(중복 표현), 어구의 함의 등을 고려할 때, 16:2의 오른쪽 말미인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동 대학교 성서학연구원 특별 연구원. hefzibar0813@gmail.com.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421).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는 마가복음 청자/독자에게 “말씀으로 인한 억압이나 박해 상황”(4:6, 17)을 상기시키는 ‘독자적 표현’(register)으로 읽고 그 함의에 걸맞게 번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의 구문적, 문체적, 내용적 차별성에 근거하여 이 어구가 왼쪽 말미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이거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어구를 번역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맥락적, 신학적, 문법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이 어구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한다.

## 2. 본론

### 2.1. 기존 번역 현황과 평가

먼저 16:2를 번역한 기존의 현황을 살펴보자. 당연히 모든 번역을 총망라 할 수는 없겠으나, 국내외의 주요 역본과 저자 고유의 번역을 제시하는 주석서들에서 추려낸 몇몇 번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마가복음 16:2의 번역 현황

역본/역자 (시리즈명)	번역
『개역개정』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새번역』	그래서 이례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공동개정』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200주년 신약성서』	그들은 주간 첫날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새한글』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NIV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i>just after sunrise</i> ,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NRS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i>when the sun had risen</i> , they went to the tomb.

역본/역자 (시리즈명)	번역
NAS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b>when the sun had risen.</b>
NJB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went to the tomb <b>when the sun had risen.</b>
LB	Und sie kamen zum Grab am ersten Tag der Woche, sehr früh, <b>als die Sonne aufging.</b>
ZB	Und sehr früh am ersten Tag der Woche kommen sie zum Grab, <b>eben als die Sonne aufging.</b>
BFC	Très tôt le dimanche matin, <b>au lever du soleil</b> , elles se rendirent au tombeau.
TOB	Et de grand matin, le premier jour de la semaine, elles vont à la tombe, <b>le soleil étant levé.</b>
Marcus (AYB)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b>after the sun had risen.</b>
Collins (Hermeneia)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went to the tomb, <b>when the sun had risen.</b>
Gnilka (EKK)	Und am frühen Morgen, am ersten (Tag) der Woche, kommen sie zum Grab, <b>als die Sonne aufgeht.</b>
Focant (CBNT)	And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b>as the sun had risen.</b>

이 번역들은 뚜렷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여 준다.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여러 번역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어를 그리스어 순에 충실하게 번역문의 제일 마지막에 두느냐(『새한글』, NAS, NJB, LB, ZB, TOB, Marcus, Collins, Gnilka, Focant), 아니면 원문의 어순과 무관하게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묶어 통째 번역하느냐(『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NIV, NRS, BFC)로 양분된다. 추정컨대 이러한 차이는 출발어의 어순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도착어의 자연스러움을 우선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듯 보인다. 차이점 외에 눈여겨볼 만한 공통점도 감지된다. 그것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예외 없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구로 간주하여 때를 표현하는 종속절이나 부사구(전치사구)로 옮겼다는 것이다(『새한글』은 유일하게 별도의 독립된 문장으로 옮겼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예로 든 모든 번역이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역할을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

미인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을 부연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위의 번역 현황에 비추어 보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번역하는 방식에는 어순과 의미에 있어서 각각 상반된 선택지가 존재한다. 1) 어순에 관하여, “왼쪽 말미와 연계하여 통째 번역할 것이냐,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려서 번역할 것이냐?” 2) 이 어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할 것이냐, 다른 가능성은 타진할 것이냐?”

본고는 아래에서 상술할 몇 가지 난점을 고려할 때 각각 앞선 두 가지 선택지, 즉 좌우 말미를 통째 번역하되 오른쪽 말미 역시 시간 배경을 지시한다고 간주하는 방식을 옹호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 즉 어순을 살리되 다른 의미를 지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본고는 마가가 이 어구를 활용하여 그저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의 의미를 부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서 청자/독자에게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상기시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상술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구문적 독특성과 신학적 함의 등을 고려하면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리면서도 마가복음 내에서 이 어구가 지닌 독특한 함의를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앞의 두 가지 선택지를 옹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난점들을 지적하고,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탐진한 후,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와 번역을 제안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 2.2.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차별성

먼저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하여 통째로 번역하거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옮기는 데 결림이 되는 난점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그것은 이 구문이 지닌 복합적인 차별성이며, 이러한 차별성은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이완의 형식, 문장 내의 위치,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 여부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 2.2.1. 이완의 형식으로서 속격 독립 구문

간결함을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흔히 그렇듯, 고대 그리스어 문장에서도 종종 주문장 그 자체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주된 정보에 선행하거나 후행한다. 이 요소들은 주문장의 앞(즉, 해당 문장의 맨 왼쪽)에 자리하면서 주로 배경(settings)이나 주제(themes)를 언급하는 ‘왼쪽 말미’와 주

문장의 뒤(즉, 해당 문장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대개 주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연하거나 정교화하는 ‘오른쪽 말미’로 대별(大別)된다.<sup>1)</sup> 이 좌우 말미들은 수려하고 완미한 문체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될지언정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주문장에 덧붙어져 문장을 다채롭게 만드는 부사적 부가어(adverbial adjunct) 역할을 담당한다.<sup>2)</sup> 고대 그리스어에서 좌우 말미를 구성하는 형식은 각종 종속절, 전치사구, 분사구, 부정사구 따위로 제법 다양하지만, 논의의 목적상 16:8과의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형식만을 간략히 살펴보자.

예1) 마가복음 1:14-15상반

μετὰ δὲ τὸ παραδοθῆναι τὸν Ἰωάννην ἥλθε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κηρύσσω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λέγων ὅτι … (요한이 넘겨진 후에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위 문장에서 부정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인 μετὰ τὸ παραδοθῆναι τὸν Ἰωάννην(요한이 넘겨진 후에)은 주문장인 ἥλθε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 앞에 위치하여 주문장이 언급하는 상황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이다. 널리 인정되듯이,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 요한의 체포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3:22 이하 참조), 요한의 운명과 예수의 운명을 연결하는 한편 요한의 때와 예수의 때를 명확히 구분한다.<sup>3)</sup>

예2) 마가복음 1:5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ὑπ’ αὐτοῦ ἐν τῷ Ἰορδάνῃ ποταμῷ ἔξομολογούμενοι τὰ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에서 그[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서 자기 죄들을 고백했다.)

위의 예에서 ἔξομολογούμενοι τὰ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자기 죄들을 고백했다)은

1)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60.31.

2) 부사적 부가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9), 455-466(§259)을 보라.

3) W. Marxsen, *Mark the Evangelist: Studies o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Gospel*, J. Boyce, et al., tr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40-42; E.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rk*, D. H. Madvig,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44-45; J. Gni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EKK II/1 (Zürich: Neukirchener Verlag, 1978), 65; J. Marcus,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York: Doubleday, 2000), 175 등.

‘연접어 분사’(participium coniunctum)가 이끄는 분사구로서,<sup>4)</sup> 주문장이 지시하는 상황과 함께 벌어진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오른쪽 말미이다. 이 문장은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거주민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주된 상황을 보도하면서, 수세자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부대 상황을 ‘곁들여’ 언급한다. 곁들였다고 표현했듯이, 여기서 마가는 ἐβαπτίζοντο … καὶ ἔξωμοι λογοῦντο … (그들은 … 세례를 받았다 … 그리고 … 고백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수세와 죄 고백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동등하게 병렬하지 않는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동안 요단강 일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거나(ἐπερώτων, 농 3:10, 14)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도 했겠으나(διαλογιζομένων, 농 3:15), 마가는 수세라는 주된 상황에 죄 고백이라는 상황만을 선별하여 부속시킨다. 말하자면 마가는 나름의 의도를 발휘하여 죄를 고백하는 상황이라는 단 하나의 ‘펜던트’(pendant)를 매달고 수세라는 주된 상황을 단출하게 장식한 셈이다.<sup>5)</sup>

이처럼 주문장 앞뒤에 위치하는 말미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주문장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으면서 주문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배경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주문장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연한다. 가용한 말미 형식이 다양함에도 그리스 문인들은 “분사 애호가들”(φιλομέτοχοι)답게<sup>6)</sup> 주된 정보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유독 분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 가운데 속격 독립 구문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속격’(genitivus absolutus)은 형식상 나머지 말미들(특히 연접어로 쓰이는 분사)과 분명하게 구별되며, 주문장으로부터 ‘이완’의 정도도 여타 말미 형식들과 사뭇 다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예3) 마가복음 4:17

Εἴτα 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ἢ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 (그런

4) ‘연접’(conjunction, ‘접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이란 문장이나 구, 문장의 각 요소 따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등위로 접속된(conjoining) 연결 관계를 말한다. 연접어(conjunct)란 연접된 각 요소를 지칭하며, 연접어로 쓰이는 분사는 연결되는 요소(주동사에 내포된 주어[주격] 등)와 등위로 접속되어 다양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부가어(adjunct) 역할을 한다. J. 라이언스, 『의미론 I: 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역,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1 (서울: 한국문화사, 2011), 224-225의 설명 참조.

5) 모울(C. F. D. Moule)은 분사의 주된 역할이 주동사에 달린 ‘펜던트’와 같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99.

6) A. N. Jannaris, *A Historical Greek Grammar* (London: The Macmillan Co., 1897), 505;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1098에서 재인용.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넘어진다.)

전치사구나 연접어 분사구를 좌우 말미로 활용하여 주문장을 ‘부사적으로’ 꾸미는 예1)이나 예2)와 달리, 예3)에서 왼쪽 말미로 활용된 속격 독립 구문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sup>7)</sup> 속격 독립 구문을 구성하는 속격 분사와 속격 (대)명사는 연접어로 쓰이는 분사와 다르게 주문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주문장과 종속문의 주종관계가 뚜렷한 복문(matrix clause)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절대적 속격’이라는 문법 명칭이 암시하듯이 속격 독립 구문을 구성하는 분사구와 주절 구문(superordinate construction)은 ‘문법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격 분사는 그 자체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 채 주문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absolutus[detached])’.<sup>8)</sup> 예3)의 왼쪽 말미이자 속격 독립 구문인 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ἢ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은 별개의 문장은 아니지만(즉, 엄연히 한 문장의 일부지만), 주문장으로부터도 느슨하게 이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즉, 주문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본고가 살피려는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즉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지극히 ‘독립적인’ 말미 형식이며, 번역 과정에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이완 상황을 살려야 한다. 문제는 우리말 어법상 왼쪽 말미로 쓰이는 속격 독립 구문과 주문장이야 한 문장으로 옮겨도 이러한 이완 상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위의 예3)처럼 주로 종속문으로 번역된다), 오른쪽 말미로 쓰이는 속격 독립 구문과 주문장은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는 한 오른쪽 말미가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있는 상황을 번역문에 반영할 묘안이 없다는 점이

7) 속격 독립 구문의 구문론적 특징은 동일한 정보(정보 1.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발생하였다; 정보 2. 그들이 넘어진다)를 전달함에도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여 주는 다음의 두 문장과 비교할 때 더 명확해진다: εἰτα ἐὰν γένηται θλῖψις ἢ διωγμός διὰ τὸν λόγον,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그런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곧 넘어진다); εἰτα ἐγένετο θλῖψις ἢ διωγμός διὰ τὸν λόγον, καὶ εὐθὺς σκανδαλίζονται(그런 다음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넘어진다). 예3)은 앞의 두 문장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보 1과 정보 2와의 상관관계는 꽤 다르다. 종속절로 연결된 앞 문장에서는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가 조건적이지만, 병렬식으로 연결된 다음 문장에서는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를 오로지 맥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달리 예3)에서 정보 1과 정보 2의 관계는 훨씬 더 미묘하다.

8)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8(§230d);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1131. 예외적으로 주동사와 속격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막 6:22 참조), 이 경우도 속격 분사로 표현되는 동작이 각별히 강조된다. H. W. Smyth,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460(§2073).

다(위『새번역』의 번역[“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참조). 따라서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을 활용하는 오른쪽 말미를 왼쪽 말미와 묶어 통째 번역해 버리면 이 형식의 독립성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연계하여 ‘통째’ 번역하면 오른쪽 말미의 구문적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2.2.2. 문장 내의 위치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속격 독립 구문으로서 주문장으로부터 이완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문장 내의 위치, 즉 어순이다. 좌우 말미를 고루 갖춘 본 절의 경우 어순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마가복음에는 속격 독립 구문이 최소 33회 나타나는데(1:32; 4:17, 35; 5:2, 18, 21, 35; 6:2, 21, 35, 47; 8:1[×2]; 9:9, 28; 10:17, 46; 11:11, 12, 27; 13:1, 3; 14:3[×2], 17, 18, 22, 43, 66; 15:33, 42; 16:1, 2),<sup>9)</sup> 4:35와 16:2를 제외하면 모두 왼쪽 말미로서 해당 문장의 주동사 ‘앞에’ 자리한다. 프라이 케(E. J. Pryke)에 따르면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형식은 마가가 이전 단락과 새로운 단락을 연결하기 위해 즐겨 활용하는 문체상의 특징인데,<sup>10)</sup>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단락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sup>11)</sup> 속격 독립 구문을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과 비교할 때,<sup>12)</sup> 마가는 이 형식을 거의 배타적으로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왼쪽 말미(즉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문장의 서두)로만 활용하는 것이다.<sup>13)</sup>

더욱이 4:35와 16:2는 오른쪽 말미로 속격 독립 구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9) 주동사와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같은 6:22(καὶ εἰσελθούσης τῆς θυγατρὸς αὐτοῦ Ἡρῳδιάδος καὶ δρηπαμένης ἤρεσεν τῷ Ἡρῷ καὶ τοῖς συνανακειμένοις)를 포함하면 총 35회다.

10) E. J. Pryke,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SNTSMS 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62-67.

11)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423 (이하 BDF로 약기[略記]).

12) BDF, §42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1130-1131.

13) 월리스(D. B. Wallace)에 따르면 의미론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고 구문론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는 점은 속격 독립 구문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이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654-655. 이런 점에서 BDF, §423은 4:35와 16:2에 나오는 속격 독립 구문의 예외적인 위치에 주목한다.

동일하지만, 16:2와 달리 4:35에는 때를 표현하는 중복 표현이 연이어 나타난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ἐν ἑ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곧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했다]). 이와 달리 16:2에는 때를 표현하는 왼쪽 말미와 속격 독립 구문인 오른쪽 말미가 주문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포(散布)되어 있다. 그러니 16:2의 어순은 마가복음 내 그 어느 속격 독립 구문의 어순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왼쪽 말미 – 주문장 –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의 오른쪽 말미”라는 어순을 보여 주는 구절은 본 절이 유일하다. 이처럼 어순 상 16:2는 주목할 만한 예외이며, 해당 절에 이미 때에 관한 언급(*λίαν πρωῒ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ἥλιου*가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한다고 예단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마가는 본 절에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ἥλιου*라는 속격 독립 구문을 나머지 예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통상의 방식과 사뭇 다르게 활용한다. 말하자면 그는 시간적 배경을 먼저 언급한 이후 주문장만으로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곧바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ἥλιου*라는 독립적인 말미를 오른쪽에 ‘덧붙였으며’, 여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의 독특한 어순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서 그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좌우 말미를 하나로 묶어 통째 번역하기보다는 『새한글』 등과 같이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 2.2.3. 중복 표현에 속하는가?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이완의 형식과 극히 예외적인 어순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 원문의 어순을 살리더라도, 이 어구가 여전히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달리 추정할 단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ἥλιου*가 ‘중복 표현’(duplicate expression)을 즐겨 사용하는 마가의 문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짐작하건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ἥλιου*를 왼쪽 말미인 *λίαν πρωῒ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과 묶어서 통째 옮긴 번역문들은 좌우 말미를 일종의 ‘중복 표현’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마가 우선설’로 대변되는 자료 비평과 그것에 기초한 편집 비평이 한창이던 20세기 초중반에도 마가복음을 편집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선행하는 문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마태복음

14) 마가의 특징적 문체로서 중복 표현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은 F. Neirynck, *Duality in Mark: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BETL 3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참조. 실제로 네이링크(F. Neirynck)는 이 구절을 중복 표현의 하나로 간주한다. Ibid., 48.

이나 누가복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밀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보상적으로 마가의 특징적인 문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5)</sup>

일찍이 학자들은 ‘중복 표현’을 마가의 독특한 문체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주목해 왔는데,<sup>16)</sup> 실제로 마가는 시간이나 장소를 중복해서 묘사하거나(1:28, 32, 35, 38, 45; 2:20; 4:35; 5:1, 11; 6:3, 45; 8:4; 10:30; 11:4; 13:3, 24; 14:3, 12, 54, 66, 68; 15:42), 이중 질문(3:4; 11:28; 12:14; 13:4), 반제 형식의 병행문(1:45; 5:19, 26; 6:52) 등 일견 장황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중 표현(duality)을 꽤 자주 사용한다. 네이링크(F. Neirynck)는 이것들 가운데 상당수를 그저 용어법(pleonasm)이나 과잉 표현(redundancy)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가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간주하여 그 섬세한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복 표현 가운데 앞선 것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언급을, 뒤따르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sup>17)</sup> 예를 들어 1:32(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 ὅτε ἔδυ ὁ ἥλιος[저녁이 되었을 때, 곧 해가 저물었을 때]), 1:35(πρωῒ ἔννυχα λίαν[일찍, 곧 어두움이 짙을 때]), 14:12(τῇ πρώτῃ ἡμέρᾳ τῶν ἀζύμων, ὅτε τὸ πάσχα ἔθυον[무교절의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을 때]), 15:42(ἡδη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 ἐπεὶ ἦν παρασκευὴ ὁ ἐστιν προσάββατον[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곧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을 때]) 등에 나오는 중복 표현은 모두 일반적인 언급 다음에 구체적인 묘사나 부연이 뒤따른다. 특히 속격 독립 구문이 중복 표현과 나란히 사용될 경우, 앞선 속격 독립 구문이 일반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이어지는 중복 표현이 상세한 때나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1:32; 6:21; 13:3; 14:66; 15:4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중복 표현이 늘 ‘연이어’ 나온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들을 보라). 앞서 확인했듯이, 심지어 16:2처럼 예외적으로 속격 독립 구문을 오른쪽 말미로 활용하는 4:35조차 때를 표현하는 중복 표현은 나란히 병치한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곧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반해 16:2의 독특한 형식, 곧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왼쪽 말미 – 주문장 – 속격 독립 구문 형식의 오른쪽 말미’라는 어순은 마가가 사용하는 중복 표현의 일

15) 예컨대, J. K. Elliott, ed.,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Gospel of Mark: An Edition of C. H. Turner's "Notes on Marcan Usage" together with Other Comparable Studies*, NovTSup 71 (Leiden: Brill, 1993[orig. 1924-28]); F. Neirynck, *Duality in Mark*; E. J. Pryke,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16) F. Neirynck, *Duality in Mark*, 14-72; J. W. Voelz, *Mark 1:1-8:26*,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3), 2-9.

17) F. Neirynck, *Duality in Mark*, 71.

반적 양상을 완전히 벗어난다. 16:2에는 때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들은 주문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포(散布)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lpha\nu\alpha\tau\epsilon\acute{\iota}\lambda\alpha\nu\tau\omega\zeta$  τοῦ ἡλίου를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기 위한 중복 표현의 일종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마가는 ‘자기가 늘 하던 방식을 따라’(κατὰ τὸ εἰωθός αὐτῷ, 놀 4:17 참조), λίαν πρωῖ, ὅτε ἀνέτειλεν ὁ ἥλιος,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곧 해가 뜰 때) 정도로 표현했을 것이다(4:6 참조). 이로 보건대  $\alpha\nu\alpha\tau\epsilon\acute{\iota}\lambda\alpha\nu\tau\omega\zeta$  τοῦ ἡλίου를 단순히 λίαν πρωῖ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에 이어지는 중복 표현으로 간주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앞서 언급된 시간적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고 볼 필요도 없다. 마가는 중복 표현의 통상적 의도, 곧 앞선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별개의 함의를 추가로 전달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이 어구를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어구를 마가 특유의 중복 표현으로 간주하면 다른 예들처럼 λίαν πρωῖ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과 함께 번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이완의 형식 및 예외적 어순이라는 난점으로 다시금 회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성적으로  $\alpha\nu\alpha\tau\epsilon\acute{\iota}\lambda\alpha\nu\tau\omega\zeta$  τοῦ ἡλίου를 λίαν πρωῖ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을 부연하는 중복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지 않을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

#### 2.2.4. $\alpha\nu\alpha\tau\epsilon\acute{\iota}\lambda\alpha\nu\tau\omega\zeta$ τοῦ ἡλίου의 함의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하는 난점은  $\alpha\nu\alpha\tau\epsilon\acute{\iota}\lambda\alpha\nu\tau\omega\zeta$  τοῦ ἡλίου라는 상황 묘사가 무엇을 함의하느냐이다. 빈 무덤 이야기를 전하는 네 복음서의 각 단락은 예외 없이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한 때가 “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시간”이었다고 전한다: 마태복음 28:1(τῇ ἐπιφωσκούσῃ εἰς μίαν σαββάτων[한 주간의 첫날을 향해 동이 틀 때]), 마가복음 16:2(λίαν πρωῖ τῇ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 [그 주간의 첫날 매우 일찍]), 누가복음 24:1(τῇ δὲ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 ὅρθρου βαθέως[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요한복음 20:1(τῇ δὲ μιᾳ τῶν σαββάτων … πρωῖ σκοτίας ἔτι οὖσῃ[그 주의 첫날 …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러나 마가복음을 제외하면 빈 무덤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어디에도 당일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해가 떠올랐다”는 언급은 없다. 마태가 “동이 틀 때”(τῇ ἐπιφωσκούσῃ)라고 언급하여 마치 해가 떠오를 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나오는 ὀψὲ σαββάτων(안식일이 지나고)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외려 그는 안식일이 끝난 일몰 시점(즉 토요일 저녁)을 염

두에 둔 듯하다(눅 23:54도 참조).<sup>18)</sup> 그러니 “해가 떠올랐다”라는 마가의 언급은 네 복음서를 통틀어도 빈 무덤 이야기에서 유독 생경하고 두드러진다.

더군다나 “해가 떠올랐다”라는 표현은 내용상 앞선 “매우 일찍”(λίαν πρωῖ)이라는 언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sup>19)</sup> 부사 πρωῖ가 정확히 언제를 뜻하는지 적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마가의 용례(13:35)를 볼 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πρωῖ는 밤 사경인 새벽(3~6시)을 뜻하는 듯하며 이때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다(요 20:1도 참조).<sup>20)</sup> 좌우 말미가 모두 때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지시하는 시간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두 표현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각종 이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사본이나 역본에 따라 λίαν(D. W. sy<sup>s,p</sup>)이나 λίαν πρωῖ를 생략하기도 하며(it<sup>c</sup>), 부정과거 분사인 ἀνατείλαντος를 현재 분사인 ἀνατέλλοντος로 수정하여 난점을 완화하기도 한다(D. it<sup>c, n, q</sup>, T. Augustine).<sup>21)</sup> 우리말 성경인『새번역』과『새한글성경』이 원문에 없는 “막”(‘이제 금방’)이라는 부사어를 추가한 것도 이러한 난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왼쪽 말미의 의미를 부연하기보다 ‘때’와

- 
- 18) E.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D. E. Gre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523;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A Shorter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4), 540; G. R. Osborne, *The Resurrection Narratives: A Redactional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76. 또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는 농 23:54(σάββατον ἐπέφωσκεν)에 관한 다음의 논의도 보라: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8A (New York: Doubleday, 1964), 1529; I. H. Marshall, *Commentary on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881.
- 19)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79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677; C. Focant,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A Commentary*, L. R. Keylock, tran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2), 664; 흥미로운 점은 G. R. Osborne, *The Resurrection Narratives*, 47, F. Neirynck, *Duality in Mark*, 48이 16:2를 중복 표현의 예로 포함하지만, “λίαν πρωῖ[매우 일찍]는 해가 떴다는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Das λίαν πρωῖ wird dadurch einigermassen beschränkt, dass die Sonne schon aufgegangen war)”라는 바이쓰(B. Weiss, *Markusevangelium*, 509)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의미상 난점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 20) 마가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면서 집주인이 귀환할 수 있는 때를 ὅ όψὲ ἢ μεσονύκτιον ἢ ἀλεκτοροφωνίας ἢ πρωῖ(저녁이나 한밤중, 밤이 올 때, 또는 새벽)로 구별한다(13:35). BDAG, s.v. “πρωῖ”, 892.
- 21)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01;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03;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670.

무관한 다른 함의를 가진 것은 아닐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렇듯 오른쪽 말미로 사용된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독특한 형식, 어색하고 극히 예외적인 어순, 중복 표현의 상궤를 벗어나는 생경한 구조, 이 어구가 지시하는 시간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볼 때 번역 과정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선택지(통째로 번역하는 것과 시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한 때를 이미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적시한 후, 무슨 이유로 “해가 떠올랐다”라는 어색한 표현을 뒷문으로 슬그머니 덧붙였을까? 이 독특한 속격 독립 구문의 역할은 무엇이고, 마가가 이 오른쪽 말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함의는 무엇인가?

### 2.3. 번역 과정에 고려할 요소들

이제까지 나는 서두에서 구분한 두 가지 선택지의 난점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논의를 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번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요소들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때를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가복음 청자/독자에게 “말씀으로 인한 억압이나 박해 상황”(4:6, 17)을 상기시키는 ‘독자적 표현’(register)으로 읽어야 하며,<sup>22)</sup> 아울러 오른쪽 말미로 사용된 속격 독립 구문이라는 어순과 형식에 걸맞게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 맥락, 신학, 문법의 차원에서 고려할 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3.1. 맥락적 고려

가장 먼저 고려할 차원은 맥락이다. 소쉬르(F. de Saussure)가 이른바 구조주의 언어학을 개진한 아래 무릇 단어나 어구의 의미는 그 자체의 어의(語義)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구조)에서의 쓰임과 다른 단어나 어구와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해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sup>23)</sup> 그러

22) register는 언어학에서 통상 ‘사용역’으로 번역되지만, 구술전승 관련 논의에서는 전승의 전달과 소통 과정에 특정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를 말한다. 상세한 정의와 설명을 위해서는 R. 로드리게즈, 『구술전승과 신약성서』, 김선용 역 (서울: 감은사, 2024), 49-50, 64를 보라.

23) 널리 알려져 있듯이, 소쉬르(F. de Saussure)는 서양장기인 체스를 예로 들어 체스의 말[馬]들이 지니는 가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스판의 형세 내에서 이들이 갖는 위치에 의존하듯, 언어에 있어서 각 사항은 그 자체의 고유한 어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과의 차이와 대립에 의해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설명한다. F.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니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구체적 함의를 파악하려면 이 어구가 가진 어휘적 의미를 넘어 단락 전체, 심지어 마가복음 서사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표현은 그것이 속한 빈 무덤 이야기(막 16:1-8) 내에서, 나아가 마가복음 서사 전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다수의 학자가 본 절의 ‘일출’을 그저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는 추가적인 언급이라고 해석하면서 때를 언급하는 왼쪽 말미와의 조화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sup>24)</sup> 마커스(J. Marcus)는 구약과 유대교 문헌의 여러 용례(창 19:27-29; 민 24:17; 삿 6:28; 삼상 5:4; 삼하 23:1-4; 사 37:36; 시 30:5; 1QS 10:1)에 기대어 이 ‘일출’이 십자가 처형 당시 엄습한 어두움을 역전시키는 부활과 메시아적 약속을 나타내는 은유라고 설명한다.<sup>25)</sup> 물론 πρωΐ, ἀνατέλλω, ἥλιος의 어의(語義)나 구약성서 등에서 그것들의 쓰임을 살펴 16:2의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겠으나, 이 단어들은 Ἰησοῦς, Πέτρος 등과 달리 그 자체로 온전히 지시적이지 않다. 비지시적인 형용사인 ‘아름답다’처럼 해당 단어들이 지시하는 현실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을 포함한 특정한 문헌 군(구약성서, 1세기 전후 유대교 문헌 등)에서 ‘일출’이 늘 명확한 의미 범주에 귀속된다고 입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sup>26)</sup> 그러니 다른 본문에서 ‘일출’이 이러저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본 절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마커스의 해석은 이 구절이 속한 단락 전체의 어조와 어울리지 않는다. 맥락과 조화를 이루기 힘든 함의인 셈이다. 사본 증거에 따라 본래의 서사가 16:8의 ἐφοβούντο γάρ(두려웠던 것이다)로 종결된다는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마가는 부활 이후 예수의 현현과 제자들의 회복, 파송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서둘러 예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가가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한 데에는 관련 전승을 몰라서라기보다 권면과 위로의 차원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부각하려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sup>27)</sup> 같은 사건을 전하는 병행 본문들(마 28:1-8; 뉴 24:1-12; 요 20:1-10)과 비

(서울: 민음사, 2006), 122-124;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용어는 철학, 문학, 인류학 등에서 저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 언어학적 체계에 적용되는 구조주의의 개념과 주장에 대한 유용한 설명으로는 J. 라이언스, 『의미론 1』, 367-527을 보라.

24) 앞의 각주 19를 보라.

25) J. Marcus,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1083-1084.

26) 성경에 나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의 외연(denotation)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M. 실바, 『성경 어휘와 그 의미: 어휘의미론 서론』, 김정우, 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60-168을 보라.

27) W. R. Telford,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37-151.

교하더라도 마가가 전하는 빈 무덤 이야기의 어조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에 휩싸여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μετὰ φόβου καὶ χαρᾶς μεγάλης ἔδραμον ἀπαγγεῖλα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마 28:8])거나, “(부활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 모든 일을 열한 명의 제자 등에게 알리지”(ἔμνήσθησαν τῶν ὥρημάτων αὐτοῦ … ἀπήγγειλαν ταῦτα πάντα τοῖς ἔνδεκα καὶ … [눅 24:8-9]) 않는다. 16:4에 따르면 외려 이들은 ‘우러러보면서’(ἀναβλέψασαι)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치워져 있는 것을 ‘목도하지만’(θεωροῦσιν), 마치 벗새다의 시각 장애인처럼(8:24-25 참조)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한 채 두려움과 멸림에 사로잡혀 도망칠 뿐이다(14:50 참조). 급기야 이들은 빈 무덤에서 조우한 청년의 지시를 무시한 채 두려운 나머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16:8). 단락 전체가 철저한 침묵과 도피로 암울하게 마무리되는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은 부정적 어조를 고려할 때, 마가복음의 결론부는 부활절 아침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재현하기보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제자들의 실패라는 특정한 주제를 각별히 부각하는 단락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언급은 부활 등을 암시하는 궁정적인 함의보다는 단락의 전반적인 기조에 부합되게 부정적인 함의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단락의 부정적 어조에 비추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도 부정적인 함의를 지녔으리라고 추정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사실은 마가가 특정한 내용을 언급한 후 이후에 전개되는 서사에서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사 서두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더 강한 자”(ὁ ἵσχυρότερός)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1:7), 이어지는 서사에서 예수는 자신이 “강한 자”(ὁ ἵσχυρός)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라고 자임한다(3:27).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αὐτὸς βαπτίσει … ἐν πνεύματι ἀγίῳ)이라고 예고하고(1:8), 예수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받을 잔과 함께 받을 세례”(τὸ ποτήριον … καὶ τὸ βάπτισμα)를 언급한다(10:39).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들이 “찢어진”(σχιζομένους) 것처럼(1:10), 그가 운명하자 하늘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져”(ἐσχίσθη) 둘이 된다(15:38).<sup>29)</sup>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

28) E. S. Malbon,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29-48.

29) 요세푸스의 언급(Bell. 5.212-14, 219)을 중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하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관련 논의에 관해서는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656-657; A. Y. Collins, *Mark*, 759-760 등을 보라.

고”(ἐπὶ τῇ πωρώσει τῆς καρδίας αὐτῶν) 애석함을 숨기지 않은 예수(3:5)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냐?”(πεπωρωμένην ἔχετε τὴν καρδίαν ὑμῶν;)라고 묻는다(8:17). 벗새다의 시각장애인인 눈을 뜨고 “우러러보았으나”(ἀναβλέψας) 온전히 보지 못한 것처럼(8:24),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우러러보았으나”(ἀναβλέψασαι) 상황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16:4).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ἀράτω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8:34), 군인들은 구례네 시몬에게 “그[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ἴνα ἄρῃ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강제한다(15:21).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ἐκ δεξιῶν καὶ … ἐξ ἀριστερῶν)를 요구했지만(10:37) 예수는 자신의 “오른쪽이나 왼쪽”(ἐκ δεξιῶν … ἢ ἐξ εὐωνύμων)에 누군가를 앉힐 권한이 없다고 사양하고(10:40), 이후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ἐκ δεξιῶν καὶ … ἐξ εὐωνύμων)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달린다(15:27). 이처럼 마가는 이후에 전개될 서사의 주요 내용을 예고하거나 미리 암시한 후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전 서사를 상기하고 재차 언급된 내용을 앞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음미하도록 유도한다.<sup>30)</sup> 동일한 내용이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나중에 언급되는 것의 의미를 이미 언급된 것에 비추어 숙고하고 간파하도록 돋는 것이다.

따라서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가 마가복음 서사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의 동일한 표현이 씨뿌리는 비유(4:3-9)의 일부인 4:6에서 이미 사용되었고(ὅτε ἀνέτειλεν ὁ ἡλιος[해가 뜨자]), 이것 이 뒤이은 해설(4:13-20)에서 “말씀으로 인해 억압이나 박해가 생기는 시기”(γενομένης θλίψεως ἢ διωγμοῦ διὰ τὸν λόγον)를 뜻한다고 적시된다(4:16-17)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서사 전반에 걸쳐 반복 표현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고 이전의 표현을 상기함으로써 재차 등장한 표현의 의미를 숙고해온 청자/독자들이라면, 16:2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첨부된 이 독특한 표현을 접했을 때 앞선 4장의 비유를 떠올렸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16:2에서 이 어구를 접한 청자/독자들은 4:6에 나온 동일한 표현을 상기하면서, 이 생경한 표현이 자신들이 겪고 있던 실질적인 억압과 박해를 넘지시 지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출’이 메시아적 희망이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이라는 어두운 분위기의 역전

30) 마가가 이야기를 전개할 때 활용하는 반복 패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47-54와 거기에 언급된 문헌들을 보라.

이 아니라 억압이나 박해를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추정은 이 단락의 부정적인 어조와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자면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는 주문장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기보다 청자/독자를 예수 이야기라는 과거로부터 억압과 박해라는 현실로 복귀시키는 문학적 장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굳이 청자/독자들에게 억압과 박해라는 부정적 함의를 상기시키려 하였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아마도 본 단락이 보여 주는 극도로 부정적인 어조와 충격적인 마무리 방식은 청중/독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이렇듯 마가가 제시하는 형태의 빈 무덤 이야기가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은 이 단락, 나아가 마가복음 전체가 “특정 지점에서 독자들의 생각에 의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어도 다른 전승을 경시하면서 특정 전승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sup>32)</sup>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서둘러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이완의 형식인 속격 독립 구문을 활용하여 ‘느슨하게’ 덧붙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라는 복선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우리의 시선을 마가의 신학으로 이끈다.

### 2.3.2. 신학적 고려

마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바울의 신학 따위의 표현은 흔히 해당 저자의 고유한 신학 사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한 저자의 ‘신학’을 묻는 것은 그의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본고는 ‘마가의 신학’을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하면서 염두에 둔 신학적 관심이나 해석학적 지평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복음서 이전 전승의 실체적 내용과 성격, 전수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과 주장이 경합하고 있지만, 마가가 자기 복음서에 수록된 내용을 온전히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 전승을 이러저러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sup>33)</sup> 그러므로 마가가

31)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2020), 251, 255-261;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142-144; H. K.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마가복음의 장르와 의미』,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291-292.

32) H.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208-209.

33) 예컨대, G. Theissen,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in the Synoptic Tradition*,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E. 이브, 『예수에서 복음서까지: 구술로 전해진 예수 자료는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나?』,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M. F. 베드, 『주 예수의 복음: 초기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신지철 역 (서울: 새물결

자신만의 ‘편집본’을 구성할 때 특정한 신학적 관심이나 해석학적 지평을 지녔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말하자면 마가는 예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과거를 ‘재현’했다기보다 자신과 당대의 신학적 관심 또는 해석학적 지평에 터 잡은 채 과거를 ‘재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는 자신만의 예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어떤 신학적 관심 또는 해석학적 지평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는 “마가는 무슨 목적으로 복음서를 구성하였나?”라는 질문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신학적 관심, 해석학적 지평, 복음서 기록 목적 등을 한 가지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마가는 다양한 신학적 관심과 목적에 따라 이전 전승을 재해석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 전승과 융합된 그의 해석학적 지평도 꽤 복잡하고 다채로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가가 십자가 추종의 제자도를 부각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마가복음은 유대 전쟁이 한창이던 주후 7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복음서의 수신 공동체는 이 처참한 당대의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실질적인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을 것이다.<sup>34)</sup> 마가는 고난과 박해라는 현실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주로 논증 형식을 활용하여 공동체 내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 바울과 달리 청자/독자들이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신앙적 결단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그 길이 “상상력을 통과하기를”<sup>35)</sup> 기대하였다. 말하자면 ‘예수 이야기’라는 문학적인 우회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야기라는 우회로를 택한 마가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반응을 예로 제시함으로써(14:27; 16:8) 청자/독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할 뿐이다. 말하자면 마가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이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플러스, 2017) 등을 보라.

- 34) 접근법이 사뭇 다름에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 점에 큰 이견이 없다. H. 본드, 『예수의 첫 번째 전기』, 37-38; 295-297(고대 전기); D. Rhoads, et al., *Mark as Story*, 144-146(서사비평); B. B. Thurston, *Maverick Mark: The Untamed First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14(개괄적 접근); J. Marcus, *Mark 1-8*, 28-29(편집비평);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248-253(사회적 기억). 다만 휴벤탈(S. Huebenthal)은 구체적인 정치적, 종교적 사건과 연계된 고난이나 박해보다는 청자/독자가 처한 ‘위기’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 35) A. N. Wilder, *The Language of the Gospel: Early Christian Rhetoric*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60.

이라는 정공법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마가복음 전반에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경고와 예고가 반복해서 언급되고(6:48; 8:35; 10:30; 13:7-13),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실패한 제자들처럼 도피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권고가 이어진다(8:31-38; 13:28-37; 14:32-42, 50-52; 15:21).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마가가 복음서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신학적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본문을 넘어’(beyond the text) 청자/독자를 직접 향하는 경고의 표지를 곁들인다는 것이다(10:30[λέβῃ … μετὰ διωγμῶν, “박해를 겪하여 받을 것이다”]; 13:14[οἱ ἀναγνώσκων νοεῖτω, “읽는 자는 깨달아라”], 37[οἱ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sup>36)</sup> 마가가 빈 무덤 이야기로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억압과 박해를 암시하는 표현을 ‘느슨하게’ 덧붙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고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일출’이 말씀으로 인한 억압과 박해 상황을 상징하는 은유(4:6, 16-17)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본문이 언급하는 ‘일출’도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가는 시점이 고난과 박해의 때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석은 마가의 신학적 관심과 정확히 공명한다. 이렇게 보자면 여인들(제자들)의 실패는 한낱 지나가 버린 옛일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채 현재와 은밀한 약속을 맺고 있는 과거이며, 이미 종결되어 버린 실패를 재차 반복할 위기에 직면한 청자/독자들이 신앙적 결단을 통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환해야 할 미완의 과제다.

### 2.3.3. 문법적 고려

이 어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논점은 문법적인 차원으로서, ἀνατείλαντος라는 속격 분사의 시제다. ἀνατείλαντος는 대개 “떠오르다”(to rise, come up)라는 뜻으로 쓰이는 ἀνατέλλω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서, 최근 ‘동사상 이론’(verbal aspect theory)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대 그리스어 시제 관련 논의에 비추어 보면 담론 구성상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근래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동사상 이론’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 시제는 “특정 종류의 담론 구성에 있어서 그리스어의 동사상(verbal aspect)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up>37)</sup> 그 이유는 저자가 어떤 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

36) S. Huebenthal,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260; A. Y. Collins, *Mark*, 619; J. Marcus, *Mark 8-16*, 922.

37) B. Fanning,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당 동작이나 상황의 상적 가치(aspectual value)가 달라지고, 결국 저자가 그 동작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aspect)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어 시제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최근의 흐름에 따르면, 문법 범주로서 상은 “화자/저자가 시간상의 전개와 관련하여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을 바라보고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sup>38)</sup> 어떤 동작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저자의 관점은 크게 외부에서 ‘전체’(complete whole)로 보느냐(부정과거 시제/완결상[perfective aspect]), 내부에서 해당 동작이나 상황이 지닌 ‘모종의 특성’(certain characteristic)에 주목하느냐(현재와 미완료 시제/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로 나뉜다.<sup>39)</sup> 이처럼 고대 그리스어의 시제는 일차적으로 시간/때를 구별하기보다 해당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제시하느냐를 변별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에 따라 동일한 동작이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된다. 이에 따라 고대 그리스어 시제는 자연스럽게 시제별 두드러짐(prominence)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sup>40)</sup> 이러한 이해를 서사문에 대입하여 극화(劇化)하자면, 부정과거 시제에 의해 ‘통째로’ 묘사되는 동작이나 상황은 시공간적으로 면 느낌이고, 현재나 미완료 시제에 의해 ‘특정한 측면’이 부각된 동작이나 상황은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sup>41)</sup> 마치 카메라 감독이 줌인(zoom-in)했다가 줌아웃(zoom-out)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교차함으로써 각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1.

- 38)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5(§192c); ‘문법 범주’로서 상(grammatical aspect)은 화자/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칭하지만, ‘어휘적 특성’으로서 상(lexical aspect)은 “동사의 의미에 내재한 구체적 동작의 시간 구조”(telic/atelic 등)를 가리킨다.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8(§33.8).
- 39)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5(§33.4). 학자에 따라 ‘결과상’(resultative aspect)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8-314(§194)를 보라.
- 40) ‘두드러짐’(prominence)의 차이는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내부라는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서사문의 경우 서사의 골격(storyline)을 이끌어가는 기본 설정 시제(default tense)가 부정과거 시제이며, 서사 전개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나 완료 시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관련 용어와 세부 개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27-431(§33.48-56);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8(§194);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B&H Academic, 2020), 236-237 등의 조심스러운 설명을 참조하라.
- 41)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38.

변주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시제가 지닌 상적 가치는 아무런 두드러짐이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난해한 글이 아니라 굴곡과 거리감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담론을 구성한다.

이러한 이해를 부정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번갈아 사용되는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마가복음 1:16(*καὶ παράγων παρὰ τὴν θάλασσαν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ἶδεν Σίμωνα καὶ Ἀνδρέαν τὸν ἀδελφὸν Σίμωνος ἀμφιβάλλοντας ἐν τῇ θαλάσσῃ*)에는 현재 분사 - 부정과거 주동사 - 현재 분사가 차례로 사용된다. 이를 카메라의 관점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본 절은 예수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는 장면(*εἶδεν*)은 줄아웃하여 전체를 보여 주고, 그들이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ἀμφιβάλλοντας*)은 다시 두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겨 줄인함으로써 생생하게 보여 주는 느낌을 전달한다. 각 시제의 상적 가치에 따라서 장면별로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본문인 *καὶ λίαν προ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 주문장(*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과 부정과거 시제가 활용된 오른쪽 말미(*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 사이에는 각 상황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 차이가 확인되고, 이에 따라 두 상황 간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마가는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은 가까이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해가 또는 장면은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카메라의 관점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본 절은 그 주간의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처음 장면은 마치 여인들과 동행하듯 생동감 있게 보여 주다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카메라를 서서히 줄아웃함으로써 여인들의 발걸음을 ‘일출’이라는 전체 광경의 일부로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려면 주절과 오른쪽 말미 사이의 거리감 차이를 적절하게 담아낼 부사어를 번역문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 2.4.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 제안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가복음 16:2, *καὶ λίαν προὶ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ἔρχονται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의 번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 그들은 그 무덤으로 갔다. 저 멀리 해가 떠올랐다.” 이 번역문은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살리되, 속격 독립 구문인 오른쪽 말미의 형식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둘로 나누었고,

시간적 의미보다는 ‘일출’이라는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 때를 나타내는 부사이나 접속사를 배제하였으며, 주문장의 시제와 분사의 시제 차이가 자아내는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저 멀리’라는 부사를 추가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명확해졌기를 바라지만, 물론 이 번역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요지는 이 이완의 형식이 청자/독자들에게 4:6이 이미 언급한 ‘일출’을 되울리고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마가 특유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점이다.

### 3. 결론을 대신하여: 시작(詩作)을 통한 재현

앞서 본고는 16:2의 오른쪽 말미인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ἡλίου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난점들과 이 어구의 맥락적, 신학적, 문법적 차원을 차례로 살피고 대안적인 번역을 제시해 보았다. 긴 논의를 거쳐 도달한 결론이지만, 원문에는 없는 부사어까지 첨가한 번역문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작위(作爲)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떨쳐 내고 그 말뜻을 되새기면, 모든 번역은 하나의 해석이며 무릇 해석이란 작위, 곧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일견 작위적으로 보이는 번역이 실상은 마가복음 서사를 면밀하게 독해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억견일까? 이쯤에서는 장황한 변명보다 “그러니까 번역자 역시 시작(詩作)을 함으로써 재현(wiedergeben)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sup>42)</sup>라는 벤야민(W. Benjamin)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점만 밝혀 두겠다.

그럼에도 제안된 번역대로 본문을 읽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인들의 뒷모습 위로 저 멀리 해가 떠오르는 의미심장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전술했듯이 이야기에 몰두한 청자/독자들이라면 서사가 마무리되는 이 장면에 이르러 한 세대 전에 전개된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불현듯 억압과 박해라는 현실로 되돌아오는 ‘타임슬립’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생경하고 한껏 도드라진 이완의 형식을 접한 청자/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치 마가의 예수가 감람산에 올라 장차 있을 고난과 박해에 관한 긴 강화를 들려 준 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으

42) W.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6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122(강조는 추가한 것).

라!”(ὁ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γρηγορεῖτε)라는 경고를 덧붙였듯이(13:37), 마가 역시 긴 서론이 붙은 수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인들의 실패로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는 그저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과거가 아니라 청자/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지금은 비록 말씀으로 인해 억압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일출’의 때라고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주제어>(Keywords)

마가복음 16:2, 고대 그리스어 시제, 동사상, 좌우 말미, 속격 독립 구문.  
Mark 16:2, ancient Greek tense, verbal aspect, right- and left-periphery,  
genitive absolute.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드 소쉬르, F.,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서울: 민음사, 2006.
- 라이언스, J., 『의미론 I: 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역,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1,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로드리게즈, R., 『구술전승과 신약성서』, 김선용 역, 서울: 감은사, 2024.
- 버드, M. F., 『주 예수의 복음: 초기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신지철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벤야민, W.,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6,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121-142.
- 본드, H. K., 『예수의 첫 번째 전기: 마가복음의 장르와 의미』,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 실바, M., 『성경 어휘와 그 의미: 어휘의미론 서론』, 김정우, 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이브, E., 『예수에서 복음서까지: 구술로 전해진 예수 자료는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나?』,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as, E. van Emde.,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Davies, W. D. and Allison, D. C., *Matthew: A Shorter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4.
- Elliott, J. K., ed.,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Gospel of Mark: An Edition of C. H. Turner's "Notes on Marcan Usage" together with Other Comparable Studies*, NovTSup, 71, Leiden: Brill, 1993(orig. 1924-28).
- Fanning, B.,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7-12.
-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8A, New York: Doubleday, 1964.

- Focant, C.,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A Commentary*, L. R. Keylock, tran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2.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EKK II/1, Zürich: Neukirchener Verlag, 1978.
- Huebenthal, S., *Reading Mark's Gospel as a Text from Collective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2020.
- Jannaris, A. N., *A Historical Greek Grammar*, London: The Macmillan Co., 1897.
- Kostenberger, A. J.,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B&H Academic, 2020.
- Malbon, E. S.,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29-48.
- Marcus, J.,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 New York: Doubleday, 2000.
- Marcus, J.,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Marshall, I. H., *Commentary on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arxsen, W., *Mark the Evangelist: Studies o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Gospel*, J. Boyce, et al., tr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Neirynck, F., *Duality in Mark: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BETL 3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 Omanson, R. L.,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Osborne, G. R., *The Resurrection Narratives: A Redactional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Pryke, E. J., *Redactional Style in the Marcan Gospel*, SNTSMS 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Rhoads, D., et al.,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Schweizer, E.,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rk*, D. H. Madvig,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 Schweizer, E.,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D. E. Gre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Smyth, H. W.,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Telford, W. R.,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heissen, G.,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in the Synoptic Tradition*,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Thurston, B. B., *Maverick Mark: The Untamed First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 Voelz, J. W., *Mark 1:1-8:26*,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3.
- von Siebenthal, H.,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9.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ilder, A. N., *The Language of the Gospel: Early Christian Rhetoric*,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Abstract>

## The Meaning of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 in Mark 16:2 with Translation Suggestions

Sung-Mi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right-periphery”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 in Mark 16:2 and to propose a new translation. In the most translations, this phrase is linked to the “left-periphery” of the main clause,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which expresses the temporal setting of the main clause, and is usually translated as something like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sun had risen.” Although the left- and right-peripheries of the verse are centered around the main clause, they are lumped together as a single semantic unit for no particular reason or rationale, and are translated as a whole to indicate the temporal setting of the main clause.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due to several difficulties, the right-periphery of the sentence,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 should not be directly linked to the left-periphery, *λίαν πρωΐ τῇ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and, more importantly,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indication of temporal setting. Rather, given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Mark’s unique redactional style (redundanc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phrase,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 should be read as a register reminding Mark’s listeners and readers of “a situation of oppression or persecution because of the word” (4:6, 17) and translated accordingly.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argues, based on the syntactic, stylistic, and contextual uniqueness of *ἀνατείλαντος τοῦ ήλιου*, that the phrase is neither tied to the left-periphery as a part of single semantic unit nor indicating a temporal setting. The paper then explores contextual, theological, and grammatical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kept in mind when translating this phrase, and concludes with a new translation of the phrase. In conclusion, this paper insists that just as Jesus warns at the end of his long teaching on the Mount of Olives about suffering and persecution, “What I tell you, I tell everyone, stay awake! (Ὄ δὲ ὑμῖν λέγω πᾶσιν λέγω, γρηγορεῖτε, 13:37)”, Mark, in telling the story of Jesus, also warns that this story is not just the past that has

passed, but an unfinished story that is relevant to all of his listeners and readers, and that this is a time of “sunrise” for them to stay awake so that they will not fail in their discipleship, even if oppression and persecution arise because of the word.